

# SOCIETY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 폭삭 삭았수다, 심었수다... 자치구들 '이색 홍보'

### 송원유치원, 32년만에 폐원 외각 이전 원아 수 급감 원인

학부모들의 선호도 높은 사립유치원으로 명성을 이어오던 송원대학교 부설 송원유치원이 최근 문을 닫았다.

13일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에 따르면 1983년 2학년 80명으로 시작한 송원유치원은 송원대의 유아교육학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신생아 감소 영향으로 신규 원아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원아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기존 주택지구에서 도심외곽 현 부지로 유치원을 이전하면서 유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은 학부모들의 이탈까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원아가 겨우 17명에 그쳐 결국 올해 초 폐원을 신청했고, 이날 9일 광주시교육청이 폐원을 인가했다.

송원유치원처럼 광주에서 문을 닫는 유치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 수는 273곳으로, 2019년 319곳과 비교하면 39곳이나 폐원했다.

원아 모집 기준을 3년 이상 충족하지 못해 장기 휴원하게 된 유치원은 폐원하는데 지난해 광주 중앙초·월곡초·차평초·동운초·조봉초 등 5곳의 공립 병설유치원이 폐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삭 삭았수다' 패러디 물 붓물 동구, 자전거보험 소개·광산구, 나무심기행사 등 안내

광주 각 자치구가 인기 드라마 '폭삭 삭았수다'를 접목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정책과 행사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13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삭았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씨의 모험가 특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학교와 보성별교공용버스터미널, 여수 청소년극제양정소년수련원 등이 배경으로 등장해 촬영이런 인기로 힘입어 자치구에서는 드라마

의 한 장면을 모방하거나 문구를 활용해 정책, 이벤트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동구는 지난 7일 '폭삭 삭았수다(학씨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35초 영상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은 도동리 어촌계장인 일명 '학씨 아저씨' 부상길이 자유자재로 자전거타는 장면에서 착안했다. 부상길처럼 분장한 장주영 동구 홍보미디어실 미디어소통팀장은 자전거를 타며 조선대 해오름관을 누볐다. 장주영 팀장은 얼마 못 가 넘어지게 되고 다른 동료 직원이 안전헬멧을 씌워준 뒤 '광주 동구 시민안심 자전거



보험'을 설명하며 영상은 끝났다.

영상 설명에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보장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조회 수는 인스타그램 810회, 유튜브 2209회(13일 정오 기준)를 기록했다.

광산구는 4일 '폭삭 삭았수다' 제목의 55초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제주어 '폭삭'은 완전이라는 의미로 한 그루의 나무도 진심으로 심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폭삭 삭았수다'로 제목을 인용했다.

또 '폭삭 불왔수다'로 시작된 영상은 3일 쌍안린공원에서 열린 '시민참여로 피어나는 꽃 더 나은 민생의 길' 나무심기 행사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박병규 구청장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꽃잔디 3만9582본, 은복서 1그루, 향나무 100그루

를 심었다.

박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관리에 대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식목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1389회(13일 정오 기준)를 기록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반영 속도 미쳤네요. 너무 리얼하다', '재미있게 만들었네요', '웃김' 등 다양한 댓글이 올라왔다.

장주영 동구 미디어소통팀장은 "주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정책 홍보를 고민하던 중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가 떠올라 영상을 만들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전남 11개 시·군 강풍주의보...피해 잇따라 여수 순간최대풍속 35%...소방, 총 43건 신고 접수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35%의 강풍이 불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남지역 11개 시·군(고흥·여수·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신안)에 발효됐던 강풍주의보가 해제됐다.

광주지역을 비롯해 타 시·군에도 한때 강풍특보가 발효됐으나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풀렸다.

주요 지점별 순간최대풍속은 여수 35%, 완도 25.9%, 신안 24.3%, 보성 23.9%, 완도 21.9%, 강진 21.8%, 광주 무등산 20.4% 등을 기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강풍으로 인한 총 43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 조치했다.

세부적으로 가로수 전도 22건, 간판 흔들림 3건, 기타 안전조치 18건 등이었다.

실제로 이날 오후 12시56분 전남 여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소방이 안전 조치했다.

앞서 오후 12시37분에는 전남 순천의 한 매장 간판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4분에는 전남 해남의 한 마을에서 강풍에 지붕이 흔들린다는 신고에 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구례에서는 강한 바람에 바위가 도로 변으로 떨어지면서 차가 전도되는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14일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실외 설치 시설물, 현수막 등 낙하물로 인한 보행자와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남 보성·장흥 관산에는 58.0mm의 비가 내렸다.

여수 돌산 57.5mm, 광양 백운산 55.0mm, 고흥 도화 53.0mm, 완도 48.5mm, 진도 서거처도 45.5mm, 여수신단 43.5mm, 강진 성전 43.0mm, 해남 북일 42.0mm, 광주 광산 27.5mm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N-NEXUS**  
N넥스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에이치에이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NETWORKS**

연구 & 개발: 통합영상관리, 지형 영상처리 솔루션, 배선관리 솔루션  
제조 & 제작: 주·원래 단위 및 CCTV 시스템  
E S S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설계, 아미비 안전 영상 보조 장치  
설계 & 지원: 유·무선망 컨설팅, 스마트시티, 영상관리, 보안·지능형교통·열차안전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 ICT 장비,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 & 설치: 정보통신공사, 스마트시티 설계, 광학 ICT 분야 설계, ITS 설치, 열차안전 시스템, 배선/배관공사

TEL 062-719-1080-2

**2025 제10기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 발대식**  
2025. 4. 12. (토) 10:00 | 서구청 2층 대강홀

**아동친화도시** **행복서구**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빛나는 곳  
여기는 **착한도시 서구**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서구**

'제10기 서구 청소년구정 참여단 발대식' 12일 광주 서구청 대강홀에서 열린 '제10기 서구 청소년구정 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청소년들이 다짐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 혁신 선도사례 '주목'

### 국회토론회서 세계 최초 시민참여형 녹서 집중 조명 "국가 정책 확대" 한목소리...민·관 협치 강화 주장도

광주 광산구의 지속가능일자리특구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일자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선도적 혁신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이학영·김주영·박해철·신장식·이용우 국회의원, 국회노동포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등 주최·주관으로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광산구가 지난 3월 발간한 '지속가능 일자리 위한 녹서'가 처음으로 공식 소개됐다.

광산구 녹서는 100여명 시민이 참여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21개 동에서 진행된 '지속가능 일자리 대화 마당'에서 나온 1436개의 질문과 이를 압축한 20개 핵심 질문을 담았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로 광산구가 내놓은 시민참여형 녹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광산구 사례를 본보기 삼아 국

가 일자리정책 기초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지리의 양적 확대 중심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기초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일자리·노동 현안에 있어 이제는 지역,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구처럼 정부도 지역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일자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훈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는 지역이 주체가 돼 일자리를 개선하고, 향후 전국적인 확산을 꾀하는 선도적 시도로 차기 정부에서 고민할 정책적인 시사점이 크다"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광산구 지역 일자리 모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삶

터와 일터를 아울러 폭넓은 일자리 협치 기반을 다지고, 제조업, 공공서비스, 마을 서비스, 마을일자리 등 여러 분야로 시민적 논의를 확장한 것에 주목하며 지역 일자리정책의 민관협력(거버넌스)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토론회 사례 발표자료로 나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추진 과정, 녹서 이후 백서(답변서)·청서(실행계획서) 제작을 위한 후속 사회적 대화 및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박 청장은 "시민 목소리를 담은 녹서, 녹서를 바탕으로 만드는 지속가능 일자리 백서와 청서는 더 나은 일자리와 지속가능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체계화하고, 그 경험과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규 청장은 '모두의 질문 Q' 프로젝트로 녹서 제작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이용우 의원에 광산구 녹서를 전달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